

Rhodia, 대대적 구조조정 착수!

A&W · ChiRex 인수 이후 경영악화 직면 ... 매각 · 해고로 문제해결

Rhodia가 1999년 Rhone-Poulenc으로부터 분사된 이후 계속 경영위기에 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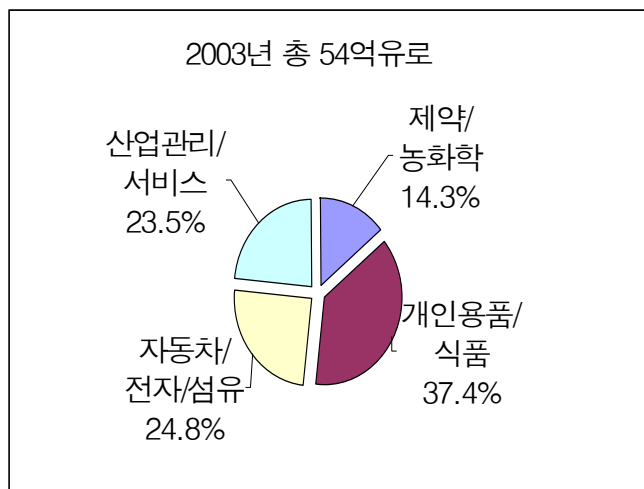
R-P은 독일 Hoechst와 합병으로 Aventis를 설립한 후 Rhodia를 분사했는데, 2003년 대주주의 요구로 CEO Jean Pierre Tirouflet이 사임한 이후 수익성이 악화되고 주가가 떨어지며 부채가 급증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Tirouflet과 경영진은 Ablight & Wilson(A&W)과 ChiRex의 지분 인수비용을 과다 지불해 주주가치를 떨어뜨렸으며, DSM이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공개매입(Takeover Bid)을 거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로디아의 부실은 Tirouflet의 독재적인 경영 스타일에 연유한다는 것이 주주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이에 따라 새로 부임한 CEO Jean Piere Clamadieu는 Tirouflet의 후임자로서 로디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다.

로디아는 순손실액이 2002년 400만유로(500만달러)에서 2003년에는 13억유로로 증가했는데 A&W와 ChiRex의 지분을 과도하게 평가해 인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3년 매출이 18% 감소해 54억 유로에 그쳤으며, 2003년 12월31일 현재 순부채는 32억유로를 기록했다.

Rhodia의 매출비중



로디아의 제약 및 농화학 사업분야 사장이었던 Clamadieu는 전임 경영진이 초기부터 저지른 실수와 현재의 난처한 상태를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데, A&W와 ChiRex 인수가 로디아의 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수익을 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Clamadieu와 경영진은 로디아의 수익을 2006년까지 회복시키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04년 말까지 7억유로에 달하는 자산을 매각할 계획 아래 최근 식품원료 사업을

Danisco에게 매각하고 전문분야였던 특수인산 사업도 분사할 계획이다.

또 몇개 사업을 매각 또는 분사하고 전체 근로자의 4.5%인 1074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해고 대상자 중 570명은 프랑스에서 단행할 예정이다.

로디아는 Acetate Filter Tow, 나일론, 황산(Sulfuric Acid) 재생 사업을 현금창출 사업으로, 정밀화학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을 개발 및 성장사업으로 분류했다.

정밀화학 사업은 2003년 EBITDA의 마진이 10.5%에서 2.1%로 크게 하락함으로써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인디아와 경쟁할 수 없는 분야인 농화학중간체 분야에서 철수하고 제약중간체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디아는 2006년까지 2억4500만유로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2004년 1억5000만유로, 2005년 1억3000만유로를 절감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4/05/17>